

“광주시 중심도시 날개”...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확정

국무회의 이어 과기부 예타면제 통과 5년 간 AI 실증사업에 6000억원 투입 도시문제·일상생활 AI 실증밸리 조성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이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에서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의 예타 면제를 승인,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AI 2단계 사업은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업이다.

이번 결정으로 2단계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 6000억원 규모로 2026년부터 5년간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지난 5년간 4300억원 규모로 국가AI데이터센터와 대형 드라잉 시설

레이터 등 1단계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2단계 사업은 이를 바탕으로 ▲모빌리티·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 AX ▲시민 체감형 도시·생활 혁신 ▲AX 핵심 인프라 조성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도시문제에 인공지능(AI)을 입히는 데 중점을 둔다.

광주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인 5구3특 체제 구현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알이(RE) 100산단 조성사업'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인 모빌리티·에너지 AI 전환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상용화를 위한 전 과정 컨트롤타워인 'AI 이노스페이스' 조성하는데 집중 투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서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체감하고 공유하는 '모두의 인공지능(AI)'의 선도적 구현을 위해 광주형 모두의 인공지능(AI) 개발을 추진하고, 일상 전반을 바꾸는 시



민 체감형 도시·생활과제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2단계 사업을 대형과제 중심으로 기획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1단계 사업 성과와 첨단 3지구 AI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융복합기업 1000개사의 집적을 목표로 한다.

또 3375개 공공시설을 'AX 실증밸리'로 개방하고, 48개 혁신기관의 연구장비 3879종을 기업에 제공해 실증 중심의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사업으로 ▲생산유발 9831억원 ▲부

가가치유발 4942억원 ▲고용유발 6281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예타 면제를 신청한 이후, 그동안 대통령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에 수십 차례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 설명과 협의를 해왔고, 안도걸·조인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과 'AI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연구개발과 실증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광훈 기자



5·18과 8·15 잇는 '착한서구 평화열차' 첫 운행 328명 함께한 평화열차, 서구에서 임진각까지 희망 여정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2일 오전 6시32분 주민 328명이 탑승한 '착한서구 평화열차'가 효천역을 출발해 5시간여 만에 파주시 임진각역에 도착, 역사적인 첫 운행을 마쳤다고 밝혔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평화열차는 5·18민주화운동과 8·15 광복의 역사와 정신을 잇는 특별기차다. 출발 전 효천역 광장에서는 '광복 80주년, 평화를 믿고 통일로'를 주제로 대형 한반도기에 평화와 통일의 염

원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출무식이 열렸다.

열차 안은 '움직이는 평화교실'로 꾸며졌다. 8·15광복, 5·18주막밥, 2025년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억의 뮤지컬', 기타밴드와 함께하는 평화멜로디 공연, 통일특강, 행복교육 등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추억의 간식과 함께하는 '유퀴즈', 보이는 라디오 등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돼 여행의 재미를 더했다.

박석우 기자

1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한일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는 방식으로 절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간에서는 폭넓은 교류가 꾸준히 쌓여왔다"며 "동시에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일관된 정책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이 요구해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도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등을 이유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등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협력의 선순환 모델링을 활용해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일본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가능토록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방미 전에 일본 찾은 李... 실용 외교 본격화

이번 방일은 이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양자 방문외교로 이재명 정부의 국외 중심 실용외교를 본격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다자 회

의 참석을 제외하고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것은 처음이다.

한일 정상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이 한일 정상 '셔틀외교'의 새 출발점이 되면서 기존 정부보다 잦은 대면이 이뤄지는 결과로 이어질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대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일 정상의 협력 관계 구축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국발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도 회담에서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하게 된 것은 한일, 한미일 협력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협력을 확대해 한일관계의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합의했다.

위 실장은 앞서 브리핑에서 "국외 중심 실용외교의 핵심에 한미 동맹이 있다"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안정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미일 협력도 지속해서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북구, 지역화폐 '부끄머니' 11월 발행

광역시 자치구 최초 국비 지원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반영

그러나 이후 정부가 제2회 추경에서 광역시 자치구를 처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북구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더해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특별지원이 추가 적용됐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며 최종적으로 발행 규모 100억 원, 할인율 18%라는 전국 최고 수준 혜택이 가능해졌다.

'부끄머니'는 광주은행과 협약을 통해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되며, 현재까지 총 1만 2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가맹점 모집에 참여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부끄머니 발행은 정부 추경을 통한 국비지원 확대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특별지원이 더해진 민생안정 대책"이라며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최대 18% 할인 혜택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골목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 어르신 1순위 놀이용품 '노래방 기기' 9월달 신규·추가 물품 구매... 보드 게임기 3대 비치

응답했다. 조사 결과 어르신들은 놀이용품 공유센터에서 대여한 노래방 기기로 노래가라에 맞춰 풍류를 즐기는 것을 가장 선호했다.

구정에서 개최하는 노래사랑 대회 참가를 위해 연습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용품은 뇌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는 구슬퍼즐이었

다. 여러 종류의 퍼즐 문제지를 확인한 뒤 다양한 색깔의 구슬로 빈 곳을 채우면서 입체 모양을 완성하는 게임인데,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기억력 향상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여럿이 즐기는 자석 낚시게임과 화투 퍼즐, 철교놀이 등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는 9월에 수요 조사 결과를 반

영한 신규 놀이용품과 추가 물품 구매에 나설 예정이다.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에 새롭게 비치되는 품목은 1대당 200만원 가량의 보드 게임기 3대이다.

또 최신 노래방 기기도 추가 구매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실시한 놀이용품 공유센터 만족도 조사에서 몇몇 어르신이 노래방 기기의 장기간 대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보완 사유로 건넸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 센터에는 노래방 기기 8대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임채일 기자

